

# 이재명 독주 체제...최고위원 경선도 '친명' 약진

## 민주 전대 1·2차 경선 '확대명'

70%대 득표...대세론 형성

박용진·강훈식 단일화 재점화 가능성

최고위원 경선 하위권 밀린 송갑석

호남 결집 등 열세 극복 방안 찾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2차 지역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면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친명(친 이재명)계 주자들이 선두권을 형성했다. 호남과 비수도권 단일 최고위원 주자로 나선 송갑석 후보는 당선권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7일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제주-인천지역 경선에서 각각 70.48%와 75.40%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1·2차 경선의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74.15%를 얻어 파죽지세로 대세론을 형성했다. 박용진 후보는 20.88%로 2위, 강훈식 후보는 4.98%로 3위에 머물렀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구도가 강하게 형성된 가운데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아 사실상 '어대명' 구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세대교체론' 기수로 나선 박용진·강훈식 후보 진영은 초반이 걸린 분위기가. 전혜철·홍영표·이인영 의원 등 법전문 유력주자들의 '불출마 지원'을 받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재명 대세론'이 초반부터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97 주자들 간 단일화 논의가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경선이 시작됐다 1위 후보와 2·3위 후보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어대명' 구도를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 주자들의 약진이 돋보

이고 있다. 최고위원 누적득표율은 정청래 후보가 28.40%로 1위를 기록했다. 고민정 후보가 22.24%로 2위, 박찬대 후보가 12.93%로 3위, 장경태 후보가 10.92%로 4위, 서영교 후보가 8.97%로 최고위원 당선권 안에 진입했다. 친문(친문재인)계의 고민정 후보만 제외하고 모두 친이(친 이재명)계 주자들이다. 반면, 비명(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후보(7.71%), 고영인 후보(4.67%), 송갑석 후보(4.16%)는 하위권으로 밀렸다.

이처럼 친명계와 비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배경은 인지도와 득표를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지도가 높은 친명계 주자들이 아무래도 당권 주자들보다 관심이 덜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낮은 투표율도 친명계 주자들의 약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 1·2차 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은 제주 17.80%, 강원 22.64%, 인천 25.86%, 경북 42.35%, 대구 43.38% 등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민주당 전대가 흥행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경선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친명 후보 1~2명에 표를 몰아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모든 친명주자들에게 표를 나눠주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명 주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제투표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호남 최고위원 주자인 송갑석 후보 측에서는 초반의 열세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전체 권리당원의 30%에 육박하는 호남 표심의 지지가 결정한다면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체 회동을 갖고 송갑석 후보의 최고위원 진입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정치권에서도 선거구단 비중 30%에 달하는 대의원 투표가 경선 막판에, 일반국민 여론조사(25%)는 경선 중반과 말바지에 나눠서 실시된다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의원과 일반국민은 권리당원에 비해 '이재명 팬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판세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문과 중도 진영 의원들이 대의원 투표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과 비수도권 최고위원 주자인 송갑석 후보가 경선 초반 고전함에 따라 호남 표심의 결집 여부가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 창구를 마련하는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라며 "호남 표심이 정치적 민도가 높다는 점에서 시대와 지역을 위한 현명한 선택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정부 위원회 존속 5년 이내 제한 '일몰제' 도입

위원회법 개정안 입법 예고

"9월 초까지 200~300개 감축"

정부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를 손쉽게 없애기 위해 위원회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행정부는 조문 개정 이유서에서 설명했다.

행안부는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가 많아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관계자는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할이 없어진 '식물위원회'를 폐지하려면 법령을 바꿔야 해 불편함이 컸다면서 "아예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면 효율적으로 식물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자문위원회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소속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가끔씩 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위원회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 취지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629개로 늘어난 정부 위원회를 30~50%(200~300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현재 규모의 30%인 3000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한미 고위급국방협의체 16일 서울서... '北핵실험' 대응 논의

한미가 이달 중순 서울에서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시 대응과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국방부 실장급이 참석하는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16~17일 서울서 개최할 계획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와 이달 말 한미 연합연습 '올지 자유의 방패'(UFS-올지프리덤 실드) 직전에 열리는 이번 KIDD에서는 지난 5월 양국 정상들의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연합뉴스

## 휴가 끝낸 윤 대통령 지지율 높일 반전 카드는?

민생 행보 강화 단계적 대응 전망

광복절 특사 통합 메시지 가능성

8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으로 약화된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반전 카드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야당에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강화하면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취임 100일(8월17일) 이전까지 지속되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가 고착화할 경우, 각종 개혁

과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동력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낮은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이후 최저 지지율(24%)이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여론조사는 언론보도와 함께 민심을 읽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표"라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즉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이후 깜짝 반전 카드를 내놓기 보다는 경제 위기 국면에 사회적 약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행보를 강화하면서 민심의 눈 높이에 부합하는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8·15 광복절 경축사나 특

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이나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휴가 직후 잠모진 쇄신 단행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야권 등을 중심으로 쇄신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5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